아시아리뷰 제13권 제1호(통권 27호), 2023: 9~38 https://doi.org/10.24987/SNUACAR.2023.4.13.1.9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임수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공동연구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비전이 대대적으로 선포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에 맞추어 평양을 시작으로 주요 지방 곳곳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건물, 거리, 공공시설이 활발하게 건축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이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담론과, 현재까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도시개발을 주목하여, 이들 사회담론과 개발의 실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들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이론을 차용하였다. 르페브르가 논의하는 공간 생산의 3가지 차원,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을 고려하여, 북한 도시공간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의 공간 구획, 도시 공간의 이미지와 상징을 살펴볼 수 있는 북한의 사회담론, 실제 공간을 전유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북한 도시민들의 공간 경험을 살펴보며, 김정은 정권의 북한 도시공간이 어떻게 설계되고, 인지되며, 실제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고지도자 우상화를 도시개발의 최우선적 목적으로 강조하던 이전의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인민'의 '문명한' 삶의 질 제고를 강조하며 도시개발 및 건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문화 · 체육시설 및 살림집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사회건설의 비전 속에 수행된 도시개발의 모습은, 실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일반주민들의 삶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모든 인민'의 '문명한 삶'을 위해 건설되었다고 선전된 '사회주의문명'의 도시 공간들은, 실제 인민이 원하는 공간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활 속 부담요소로 작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주제어 앙리 르페브르, 공간이론, 북한도시, 김정은 정권, 평양, 삼지연

I. 서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사회 내부 담론 속에는 '인민'을 높이며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비전이 대대적으로 선포되었다.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은(로동신문 13/01/01), 이후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대중체육봉사시설들 … 을 비롯하여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 새로운 풍경"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도시건설의 계획으로 설명되었다(로동신문 13/01/17).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에 맞추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평양을 시작으로 마식령, 원산 등 지방도시 곳곳에 '인민'의 위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건물, 공공시설, 거리 건설의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착공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려명거리'를 포함한 평양 곳곳 '현대성', '과학성'을 과시하며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고층 건물, 문화·체육시설은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실천적 성과로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삼지연, 검덕지구와 같은 지방도시 역시 '사회주의문명'이 성취되는, '평양 못지않은' 도시로서 선전되고 있다(로동신문 20/02/27). 종합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인민'을 위한다는 비전 속, 실제 도시건설 및 건축과의 밀접한 연계하에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 발생되고 있는 활발한 도시건설의 담론과 도시건설·개발의 모습은 과거 북한 도시건설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모습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북한의 도시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것은 '주체'를 중심으로 '남의 것'을 본받지 않으며 세계사회로부터 거리를 둔 채 '최고지도자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공간의 생산이었다(이종겸·정현주, 2022: 33-51). 도시 어디에서나 최고지도자의 위대성과 정치사상의 중요성을 선제적이고 직관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구축되었던 도시직조와 공간의 구획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민이 '높은' 삶을 질을 누릴 수 있는 풍부한 문화 및 여가 생활 공간의 창출로서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과 도시개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들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정권하 건설된 도시의 모습이 '인민'의 삶 속에 어떻게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현실 생활세계 속 경험적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공간을 하나의 사회적 총체로 살피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도시공간 속 나타나는 정치엘리트들의 사회건설 담론과 비전, 실제 건설·건축의 집행,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민'의 삶과 인식을 살펴보며, 김정은 정권하 북한 정치엘리트-일반 주민, 사회담론-실천적 생활양식 사이의 관계도식을 살펴보고, 현재 북한사회의 특징과 변화, 개발의 비전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다.

II. 르페브르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도시공간의 '삼중적 관계'

북한도시가 이데올로기 및 사회통치를 염두한 정치엘리트들의 구상과 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이 건설된 공간이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생활자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도시공간의 모습은 공간의 행위자와 공간의 물리적 구성과 구획, 상징과 이미지를 중층적으로 살펴보는 앙리 르페브르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르페브르, 2019). 르페브르는 공간이론을 통해 공간 내부의 물리적 생산물과 공간에 관한 담론,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실천(체험) 사이 중층적이며 상호 연결된 공간 구성의 복합적 도식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총체적 공간의 생산과 재생산의 문제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르페브르는 공간 생산 속 나타나는 3가지 차원(또는 계기)으로,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을 주요하게 지목하였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간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공간 재현은 공간의 구획과 배열과 같은 물리적 차원에서 공간의 기획과 관계하는 부분이다. 이는 공간 구상과 건설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인지'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공간 재현 차원에서는 공간 관련 전문가, 학자, 계획가, 도시 설계자, 기술관료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공간의 모습이 주목

된다(르페브르, 2019: 86-87). 다시 논하면, 공간 재현의 차원에서 살피는 공간의 주요한 주체는 공간의 설계를 직접 담당하고 건축을 수행하며 인식에 맞게 공간을 주조·변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 재현의 차원에서 공간의 기획(또는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기호, 언어적 기호의 체계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는데(르페브르, 2019: 91), 이를 다시 고려하면, 공간 계획의 단계 속에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지식'의 개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즉, '계획'이라는 일관성하에서 공간 재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이는 고정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또는 지식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간 재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공간 재현 차원에서 공간의 건설과 관련한 정치엘리트, 도시계획가 등 도시 설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공간에 대한 인지·인식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정치엘리트들의 공간 통치 전략, 나아가 이들의 사회적 개입 및 통제에 관해 살펴볼 수도 있게 된다.

2. 재현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

재현 공간에서는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상징'이 주요하게 고려된다. 공간 기획자들은 공간을 계획에 맞게 재현하기 위하여 지식의 체계 속에서 기호화를 이루어 낸다. 공간을 전유하고 경험하며 갖게 되는 '이미지'와 '상징'은 공간을 전유하는 주체들의 체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르페브르, 2019: 91-92). 여기서 '이미지', '상징'의 내면화가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는 생활하고 경험하는 주체들에 의해 공간이 소유되는 과정이라 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의 '이미지', '상징'의 소유를 통해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합의된 코드 같은 것들이 주민들에게 내재화되고, 이 내재화를 통해 개개인은 사회라는 외부세계에서 내재화된 것들이 '자발적'으로 발현되게 되는 것이다(임수진, 2019: 197-232). 재현 공간은 "비언어적 상징과 기호들의 일관성 있는 체계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르페브르, 2019: 88). 공간 속 나타나는 상징과 기호의 '체계화', 이들의 구조와 관계성을 살피면서, 공간이 인지체계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

며 개인 및 집단의 삶을 인식론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

3. 공간적 실천(Practice of Space)

공간적 실천은 실제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는 개개인이 지각하는 공간 속에서 행위하는 일상성(일상적인 현실/시간표)과 일상적 공간의 경로나 관계망(일터, 여가장소 사이의 연결 등)을 살펴본다. 공간적 실천에서 주요하게 살피는 것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행위인데, 르페브르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각기 다른 '공간 능력'을 보유하고, 이 공간에서의 수행('공간 수행')을 통해 공간적 실천이 나타난다고 논한다(르페브르, 2019: 87). 즉, 사람들은 '공간 능력'과 '공간 수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간을 지배하고, 그 안에서 공간을 전유하며 비로소 하나의 공간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실천은 '경험'적 차원에서 공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공간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체계,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재현 공간(인식), 공간 재현(이미지)에서 살펴보는 '형이상학'적 공간의 모습들은, 공간적 실천을 통해 개개인들의 경험, 공간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삶 속 실제, '형이하학'의 차원으로 내려오며 공간의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이 3개의 차원을 정리하면, 공간은 결국 공간에 개입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지각되고, 인지되고, 체험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이론 논의를 통해 공간의 건설에 관여하고 공간의 생산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포착되고, 이들 사이의 군집과 연결망들이 목격될 수 있기 때문에,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은 결국 공간의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은 사회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3가지 계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 3가지 계기, 즉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을 고려할 때 공간 생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공간이론 논의를 북한 도시건설에 대입하면, 북한 도시공간의 설계 및 생활에 관여하는 두 주체로서, 통치하는 '정치 엘리트'와, 통치받는 '인민'의 두 축을 통해 도시공간의 생산 모습을 도식화할 수 있다. 새로운 차원의 도

시공간 건설은 한편으로는 '상징적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의 정치엘리트가 주민들의 인식틀을 구조화한다는 '지식정치' 또는 '모델의 정치학' 등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부합한다(윤종석·박철현, 2014; 양한순, 2007). '공간'이라는 존재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 실제 공간의 구획,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은, 결국 공간의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위계나 대응행위 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표'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 사이 행위·관계, 그리고 공간 전유 및 체험의 관계망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될 수 있는 르페브르 공간 생산의 3가지 차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 '도시공간' 생산을 행위자와 공간의 연결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공간생산의 세 차원,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을 분석의 큰 틀로 차용하고, 북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두 주체로서 북한의 정치엘리트와 인민을 고려하여, 김정은 정권하 북한 도시건설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본다.

III. 북한 정치엘리트들의 공간 재현과 재현된 공간의 모습

1.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과 도시개발의 연결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포함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을 선포하였다(로동신문 13/01/01). 교육, 보건 관련 국제사회 표준에 부합한 제도·정책을 확충한 이후(박찬석, 2013), 북한에서는 마식령을 선봉으로 주요 도시에 상징적인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마식령의 경우 잘 알려져 있듯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 건설을 목표로 하여, 김정은의 수차례의 현지 방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고(로동신문 13/05/27), 이는 사회동원 구호로서 '마식령속도'로 이어지며 전 사회적 주요 담론으로 발전되었다(로동신문 13/06/05). 이를 시작으로 평양에는 문화·체육시설이 대규모 확충되었다. '청춘거리' 체육관 개보수, 통일거리운동센터, 미림승마구락부, 문무물놀이장 등 대형 시설물들이 설립되었고, 평양 곳

곳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빙상장, 경기장 등 여러 형태의 소규모 문화·체육시설이 활발하게 건설되었다(현인애, 2018: 53-59; 정은미, 2016: 187-189).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구호의 대대적인 홍보와 다양한 문화 및 휴양시설의 개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주택시설의 설립은 단순히 발전된 도시, 발전된 국가의 담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 문명한 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제, 무상체료제를 실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데 복무하고 있다(로동신문 13/01/17).

> 정녕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대중체육봉사시설들의 희한한 모습을 비롯하여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가 집대성된 그 모든 새로운 풍경들은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시려는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들이다(로동신문 13/10/20).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논의는 '인민'을 중시하는 김정은의 '애민(愛民)' 또는 '위민(爲民)'의 담론과 이어졌다.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전하는 과학연구기지"(로동신문 14/10/08), "인민사랑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동신문 15/01/20) 등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관련한 '성과'는 '인민사랑'의 결과물로서 설명되었다. '인민사랑'의 논의는 보다 확장되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개념으로 집대성되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3년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2015년 신년사에 포함되며 주요한 정책 기조로 설명되었고,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사업 과제로 정식 채택되며 전사회적 구호이자 지도지침으로 선포되었다.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 지고 인민대중에게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고상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참답게 보장해주고 있다. 더우기 새로운 주체100년대[2011년, 저자 주]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인민들 모두가 세상이 보란듯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김현환, 2016: 117-124).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새로운 김정은의 사회건설 비전으로 설명되고, 이는 구체적으로 '풍부한 문화생활'의 향유로서 체험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 즉,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실천 행위'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논의되었다. 그중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개발 및 건설사업이 진행된 도시로서 평양과 삼지연을 들 수 있다.

1) 평양의 '사회주의문명' 도시 만들기

평양은 북한 제일의 도시로서, 혁명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로서 북한 건설정책의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평안남도 안에 속해 있던 평양은 1946년 9월 특별시로 분리, 1952년 직할시로 승격되며 계속적으로 개발 사업이 수행되었다(전영선, 2022: 59-85). 평양 도시개발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도 최우선적 과제로서 집중 수행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 김정은 정권은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의 건설 속에 살림집을 포함한 다양한 고층 건물들의 건축을 통해 평양을 '현대적' 이미지를 가진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문화·체육시설의 건설을 통해 '인민'을 위한 공간이 혁신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을 선전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되는 도시건설의 이미지는 이전 정권인 김정일 정권 평양 도시건설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하 평양의 도시개발에서 강조된 모습은 '수령'의 위대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교양의 중심지로서의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평양 건설은 영생탑, 주체사상탑 등 '수령'의 우상화 및 업적을 칭송하는 상징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되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의 평양 건설사업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문명'의 중심지로서 강조되었다(정일영, 2022: 28).

(김정일 집권기, 1995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만수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건립되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수많이 일떠선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로동신문 95/03/18).

(김정은 집권기, 2013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것이 김정은령도자의 의도이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니고 계시는 문명의 높이, 창조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 조선의 경제형편이 아직은 어렵지만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는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그이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지적하였다(로동신문 13/10/18).

'수령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기념관, 기념비 등의 건축을 강조하던 이전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의 북한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피도록 만들어 주는 문화·체육시설의 건설이 강조되었다.

인류문화가 발원된 유구한 력사와 자랑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에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솟아난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아름답게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한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수도 평양의 웅장함을 더해주고있다. …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진 문수물놀이장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문화휴식터이다. …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게 하시려는 어버이의 사랑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에도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로동신문 19/06/26).

김정은 정권에서 평양건설의 대표적 업적으로 볼 수 있는 '려명거리'를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로동신문 19/06/26). 려명거리는 "교육자, 과학자, 인민

들에게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거리"로 설명되며(로동신문 18/10/05), 김정은의 수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려명거리 건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초고층 살림집의 건설이다. 초고층 살림집이 중심이 되어 구획된 거리는 '인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띤다.

> 려명거리는 …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 려명거리건설을 …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창조되고 있으며 … 이 땅에서 울리는 투쟁과 행복의 노래소리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드높은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똑똑히 과시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로동신문 17/03/16).

> 김일성종합대학의 새 교사들과 기숙사는 물론 살림집지구들에 일떠서는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옷수리소, 구두수리소, 체신소 등 공공건물들과 편의봉사시설공사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로동신문 17/01/26).

또한 살림집 건설과 함께 려명거리에는 '인민편의시설'이 함께 중요하게 선전되는데, 그동안의 거리 건설이 수령을 위시하는 상징물에 집중되어 논의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주요 편의시설을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민' 생활의 편의를 고려한 도시개발의 모습은 '사회주의문명국'을 강조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담론이 현실세계 속에 실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인민'의 인식 속에 수용될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의 '사회주의문명' 본보기도시로서 삼지연시

삼지연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강조하는 도시 중 하나로, 김정은 정권에서 지역개발사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삼지연은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 통치에 있어 상징적인 역사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혈통적 역사성 및 통치정당성을 상징해 주는 곳이었다. 북한사회 내에서 삼지연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김정일이 삼지연 현지지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로동신문 02/10/08). 당시 김정일이 삼지연을 현지지도하며 강조한 것은 '혁명전적지'로서의 모습으로, '혁명전통' 정치사상교양의 주요한 거점으로서 초기 삼지연 개발은 추진되었다.

> 대로전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은 당선전일군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여 가고 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삼지연읍에 새로 건설된 백두관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총서관, 백두밀영안내실, 천지안내실, 삼지연안내실, 리명수안내실 등 삼지연 일대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실상 그대로 볼수 있게 꾸려진 백두관은 **혁명전통교양의 또 하나의 훌륭한 거점**이다(로동신문 02/10/08).

과거 김정일의 삼지연 현지지도 보도 기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었던 장소는 '백두관'이었다. 이는 항일혁명전투를 칭송하며 김정일 집권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설명해 주는 정치사상교양의 거점 장소였다. 이후 김정일은 삼지연을 수 차례 방문하였는데, 모든 일정 속에서 일관되게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삼지연의 '항일혁명전투' 거점지역으로서의 상징성이었다.[1] 김정일 정권하 삼지연 개발의 목적은 '혁명의 성지'이자 '혁명활동사적의 집결지'로서 정비하는 것이었다.

반면 김정은의 삼지연지구 현지지도 보도내용을 보면 김정일의 현지지도 보도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1월 30일『로동신문』에서 김정은의 삼지연 현지지도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삼지연 주요 장소를 방문한 순서가 김정일이 방문한 순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3년 삼지연 방문에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베개봉국수집—삼지연문화회관—백두산체육지구촌의 순서대로 방문하였고, 방문의 순서는『로동신문』1면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후 2면에 전통적인 혁명성지로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방문한 내용이 소개되었다(로동신문 13/11/3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은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것만큼 **겨울철에도 학생들이 과외소조활동을 지장없이 할수있게** 궁전의 실내온도 보장조건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온도 보장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

[1] 2009년 3월 5일 삼지연 현지지도 당시에도 최우선적 강조된 것이 삼지연의 혁명전적지로서의 모습이었다(로동신문 09/03/05).

>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로동신문 13/11/30).

다음에서 김정은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2002년 삼지연을 방문한 김정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혁명전적지에 찾아 오는 답사자들을 …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강조한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로동신문 02/10/08).[2]

2013년 11월 김정은의 삼지연 공식 현지지도 이후, 삼지연 개발은 2015년 4월 무봉국제관광특구 설치, 2016년 '삼지연 꾸리기' 사업으로 이어지며, 실질적 도시개발 및 건설 사업으로 확장되었다(박성열 외, 2002). 다음의 내용을 보면, 삼지연 개발에서 강조된 건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 개건보수와 인공잔디축구경기장건설을 비롯하여 군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로동신문 14/08/08).

> … 삼지연읍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보수하고 체육 및 문화시설들도 건설해야 한다. … 농장들을 멋쟁이농장도시로 전변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백두산지구의 전반적 도로들도 기술재건해야 한다.(로동신문 16/08/17)

다음의 논의를 보면, 김정은의 삼지연 현지지도는 항일혁명전적지로서 '혁명전통교양'의 사상교양 거점으로서 과거를 회고하며 정권 정통성을 인정받기보다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점도시로서 인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는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2009년 3월 5일 김정일의 삼지연 현지지도 역시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은 삼지연의 혁명전적지로서의 모습이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지는 것이었다(로동신문 09/03/05).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킬 것을 약속하며, "인민들이 문명과 락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로동신문 19/01/01). 이에 따라 도로 건설과 같은 제반 작업을 완료한 이후(로동신문 19/03/19), 공공·산업건물, 살림집 등을 건설하는 작업을 이어 갔다(로동신문 19/04/04). 김정은은 2019년 12월 당시 군단위였던 삼지연을 '시'로 승격시키고 2020년 2월 '삼지연시꾸리기'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진입을 선포하였다.

> 2월의 흰눈덮인 삼지연시는 참으로 아름답다. 명백하게 구분되여있는 교양구획, 시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들, 현대미와 북방특유의 매력을 과시하며 각양각색으로 독특하게 일떠선 여러형태의 건축물들,유서깊은 성지에 새로 뿌리내린 봇나무며 분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간 번듯한 포장도로들….
>
> … 려명거리 건물들의 외벽색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삼지연군건물외부의 색형상을 생각하시고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도 삼지연군학생소년들에게 현대적인과외교양기지를 꾸려주실것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로동신문 20/02/27).

다음의 '삼지연꾸리기'를 통해, 김정은의 '사회주의문명국' 담론과 도시개발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서 강조된 삼지연시의 개발·건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문명' 담론 속에 강조되었던 주요 건축물들—즉, 살림집, 체육문화, 교육보건, 관광 등—이 주요하게 홍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지방 농촌이었던 삼지연이 '평양'을 본받는 '현대적'인 도시의 조감, 직조를 따를 뿐 아니라, 담론 속에서도 '평양' 또는 '도심이 부럽지 않은' 지역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상기한 기사는 평양과 삼지연시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평양에서 현지지도를 나가서도 삼지연을 생각하며 평양의 본보기를 삼지연에 그대로 적용하여, 지역도시를 위한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삼지연의 모습을 통해 소외된 지방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희망, 즉 '사회주의문명' 지방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재현된 김정은식 도시공간의 모습

북한의 도시공간은 전통적으로 사상교양의 거점공간으로서 지도자를 부각하고 지도자의 정권 정통성을 입증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도시 공간은 인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민 중심의 공간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북한에서 논의되고 건설되는 '재현된 도시'의 모습은 '인민'을 위한 공간들로서 강조된다.

먼저, 앞서 논하였듯 '인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강조를 주목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이전에도 문화·체육시설이 건설되었지만, 이들은 오락적 기능보다는 노동 이후 휴식공간으로서 강조되어 왔다(정일영, 2016). 김정일 정권 때 건설된 유원지, 공원, 동·식물원 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 학교"로서(김일성, 1982: 338), 또는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하고 "청소년들에게 … 사회주의애국주의로 교양"하는 사상교화의 본거지로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로동신문 89/10/18).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사회주의문명국을 내세운 도시개발 속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정서생활기지'로서 강조된다.

>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최근시기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은 요구에 맞게 … 자랑할만한 문화정서기지들이 해마다 수많이 일떠서고 그속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제손으로 창조한 새문명의 진맛을 보란듯이 향유하고 있다.
>
>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인민극장, 평양민속공원, 통일거리운동쎈터, 릉라곱등어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메아리사격관, 공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종합봉사선《무지개호》…
>
>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지난 3년간 남짓한 기간에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한 수많은 문화정서기지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선 사실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김현환, 2016: 164-165).

김정은 정권 때 새로 설립된 문화·체육시설은 복합문화시설 등을 통해 한 공간에서도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과거 문

출처: 『로동신문』 2015년 1월 18일.

그림 1 문수물놀이장(왼쪽)과 영화관(오른쪽)

화·체육시설로서 건설된 공원, 운동장 등은 단체생활에 부합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모습이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의 문화·체육시설은 수영, 헬스,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화되어 나타난다. 즉, 개인의 기호에 맞추어 공간 및 시설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에 비해 '인민'의 '개별성' 및 '자율성'이 확충된 공간으로서 새로운 도시공간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은 '모든 인민'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일부 자본가만이 '문명한 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미제, 남조선' 등 '자본주의 사회'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발전된 김정은의 '사회주의문명' 도시가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 개인주의에 기초한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언제 가도 문명강국을 건설할수 없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낡고 뒤떨어진 부르죠아반동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인것과 관련된다. …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로동신문 16/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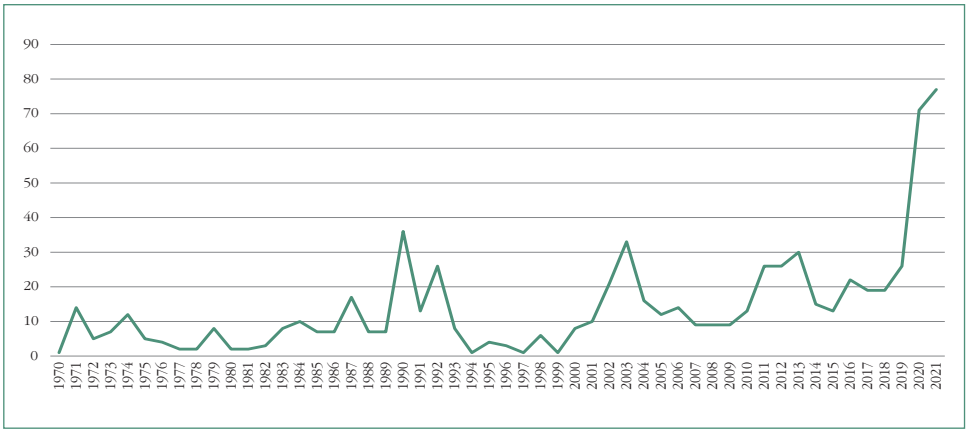
출처: 『로동신문』 2017년 1월 26일.

그림 2 려명거리 고층건물과 내부 살림집 인테리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민'의 '문명한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살림집 건축'이 강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는 …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도, 시, 군들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 고층살림집건설이 벌어지고있다."(로동신문 17/10/17)

김정은의 도시 건설현장 현지지도 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살림집 건설현상을 방문하거나 살림집 인테리어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김정은 이전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에서도 살림집 건설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었지만, 김정은 정권 시대에 들어와 살림집 건설은 도시건설의 핵심 아젠다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를 통해 볼 때에도 김정은이 직접 살림집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1970~2021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속 '살림집' 언급빈도

의 내부 인테리어를 일일이 확인하며 '인민'의 삶의 공간을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공동살림방, 부모방, 공부방, 서재, 부엌 등으로 이루어진 살림집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베란다에는 자연채광창을 달아주고 방들에는 겹창들을 설치하였는데 잘하였다고 하시였다(로동신문 17/01/26).

『로동신문』 기사제목을 중심으로 한 언급빈도를 살펴보아도, '살림집'에 대한 언급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늘어나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실제 김정은 정권 시대에 들어와 '인민'을 위한 살림집 건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양의 경우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은정과학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립되었고, 함경북도, 삼지연, 검덕지구 등 주요 지방도시의 개발 및 재건 사업으로서 살림집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수행되었다(표 1).

최근 2023년 1월 1일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표 1 김정은 시대 북한 주요지역 살림집 건설 현황

지역		개발시기	사업내용
평양	창전거리	2011. 5.~ 2012. 6.	•14개 동 고층아파트(20~45층) •상업봉사시설 및 편의후생시설(인민극장, 상점, 백화점, 식당, 목욕탕, 이발소 등) •교육시설 및 공공건물(학교, 유치원 등) •건물 이외 부지 공원 조성
	은하과학자거리	2013. 2.~ 2013. 9.	•21개 동 아파트(약 1,000여 세대) •상업봉사시설 및 편의후생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건물 •잔디밭, 공원, 산책로 조성
	은정과학지구	2014. 3.~ 2014. 10.	•24개 동 아파트 •편의후생시설 및 교육시설 •공원, 텃밭 조성
	미래과학자거리	2015	•19개 동 고층아파트(50층 이상 초고층 포함) •상업봉사시설 및 편의후생시설 •공공건물
	려명거리	2016. 4.~ 2017. 4.	•44개 동 주택(35~70층 초고층 포함) •상업봉사시설 및 편의후생시설 •김일성종합대학 일부 건물도 포함 •생태 녹화기술 적용
삼지연	량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	2016~	•1단계: 도로, 공공건물, 상업봉사, 편의후생시설 •2단계: 4,000여 세대 단층·다층 살림집, 380여 동 공공건물 등 •3단계: 수천여 세대 살림집, 공공건물, 도로 등
함경북도	회령, 무산, 연사, 온성, 경원, 경흥	2016. 9.~ 2016. 12.	•수해 피해지역 복구 •3,000여 동 단층 살림집(11,900여 세대, 3층/5층) •교육시설, 공공건물
함경남도	검덕지구	2020. 9.~	•수해 피해지역 복구 •5,000여 세대 살림집 •공공건물 및 공원

출처: 김두환·최상희(2020: 24-39); 뉴스1(22/01/01)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확대회의 보도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살림집 건설에 대한 관심 및 강조가 분명히 드러났다. 김정은은 2022년 대표 경제성과로서 살림집 건설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2023년 주요 과제로서 농촌의 살림집 건설을 제시하며, 살림집 건설이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으로서 우선 수행할 것으로 공포하였다(로동신문

23/01/01). 북한도시 건설의 계획 속 살림집이 주요하게 고려·홍보되고 있고, 이는 곧 '인민'을 위한 공간의 구축으로서 상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IV. '도시' 공간 속 인민의 삶: 재현 공간과 공간적 실천 사이에서

1. 사회주의문명 담론을 통한 도시공간의 재현

김정은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도시건설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칭송과 우상화보다는 '인민의 편리'를 강조하며 '인민중시'의 모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도시건설의 핵심 방향을 알 수 있는 건축원칙에서도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건축 원칙은 '주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의 것'을 본받지 않고 '최고지도자의 위대성'을 강조는 것이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 건축의 핵심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즉, '편리성', '현대성', '과학화'와 같은 기능성을 강조하며, '인민'을 위한 건축을 강조하고 있다.[3]

> 편리성은 인간생활과 연관된 건축의 시원으로서 건설에서 인민들을 위해 편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선건축』, 2017, 3호).

>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입니다.(김정은) …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인민대중의 문화 정서적 요구에 맞게 건축창조에서 선편리, 선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으며 … 인민대중을 위한 주체건축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조선건축』, 2017, 1호).

과거 북한 도시개발은, 역 앞, 강변, 중심도로변과 같은 핵심지역에 '주체' 또는 '수령'을 상징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 당사, 수령의 동상, 혁명 광장 등을 건설

3 이에 김정일과 김정은시대 건축철학에 관한 논의는, 이종겸·정현주(2022)의 논문 참조.

하고, '수령'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것에 최우선적 관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 도시는 일반적으로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상징공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간주되고, 핵심 건축물로서 김일성동상 등 체제 선전의 조형물이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도시 구획 속에서 이런 사상적 상징물들이 공간 구성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그 주변부에 상업, 문화, 거주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정일영, 2016).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양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건설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살림집이 여러 면에서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편리하고 미학적인' 고층 아파트가 중심축으로 건설되고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주요 건설과제로서 강조되고 집행되었다. 또한 살림집 주변부에 공원과 녹지대 역시 주요하게 간주되며 건설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 '인민'의 생활세계 속 도시 공간적 실천

북한의 도시건설 현황과 담론을 통해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 도시로서 김정은의 도시 공간이 구획·생산되었다면, 공간적 실천 차원에서 도시공간은 북한 주민들을 통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인민'의 일상생활 속 도시공간이 실제 이들을 위한 '지상낙원'으로서 '실천'되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 북한도시를 경험한 주민들의 인식과 생활양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 북한도시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 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에 지난 10월 개장 이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작 물놀이장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의무적으로 물놀이장 방문을 지시해 주민들의 장사 등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데일리 NK 13/12/03).

> 실제로 유희장에 가본적은 없다. 국정가격으로 입장권이 배당되[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쓰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해야 하

지 않았나 생각했었다(탈북자 인터뷰, 정일영, 2016: 28).

다음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사회주의문명'을 위한 건축물들은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과 무관한 존재로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 보여지는,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 건설된 문화·체육시설은, 일반 주민이 이용가능하고 일반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시설들로 칭송되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사실을 위의 증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은 '모든 인민'이 여유를 가지고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지만,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은 인민 생활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논할 수 있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건설된 시설, 건축물들에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새로운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은 생계활동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할애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국가 예산이 식생활과 같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원조로 사용되지 않고 여가 시설에 투입되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고려할 수 있다.

2022년 조사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사회변동 지표 속에서도 김정은 정권하 '인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부정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거주 당시 지출비용 중 '식비 지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문화생활 지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사회 내부 경제 악화에 따라 실제 재정지출이 식생활 위주로 단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인민'을 위한다는 문화·체육시설, 살림집의 건설은 대체로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과 재정이 동원되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문명' 도시의 건설은 일반주민에게는 건설 자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건설 이후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유희오락시설을 건설할 때, 국가-도-시로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부담하게

표 2 식비 지출 비중

탈북 연도	식비 지출 비중
2014	41.44
2015	42.56
2016	39.89
2017	48.01
2018	43.11
2019	45.65

출처: 송원준(2022: 208-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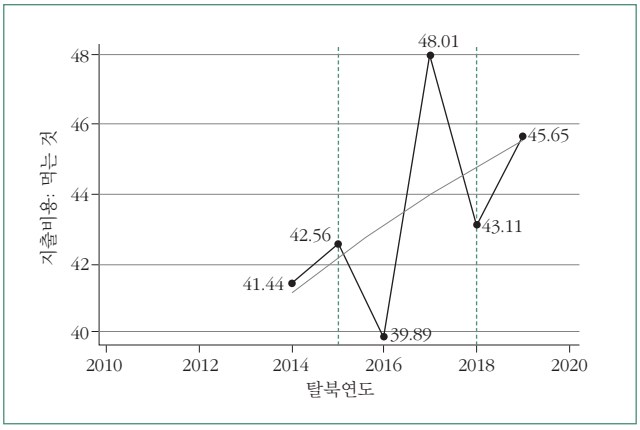


그림 4 식비 지출 비중 추세

표 3 문화생활 지출 비중

탈북 연도	문화생활 지출 비중
2014	5.22
2015	5.09
2016	5.95
2017	5.12
2018	6.5
2019	5.05

출처: 송원준(2022: 208-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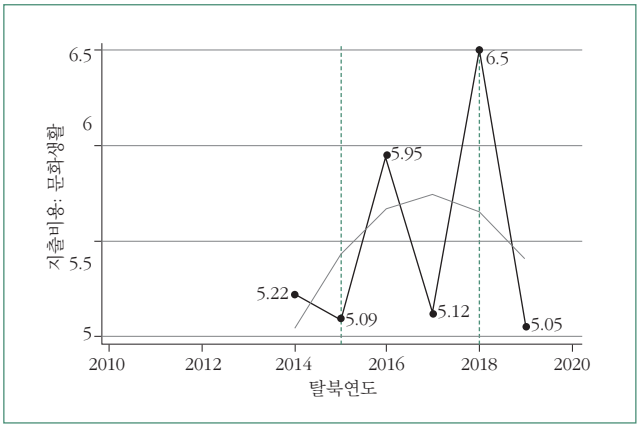


그림 5 문화생활 지출 비중 추세

된다. 주거지의 시설(도로 등)을 새롭게 공사할 경우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나누어 낸다. 이런 나누기가 많다보니 간부들이 나누기 할 줄만 안다'는 말을 했다. 직장에서도 내고, 학교, 인민반별로 겹쳐서 내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다(탈북자 인터뷰, 정일영, 2016: 28).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국 도처에 건설된 물놀이장이 심한 물 부족과 위생여건 미비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 물놀이장 관리 부실은 특권층이 즐기는 문수 물

> 놀이장과 릉라인민유원지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 평양시에서도 심각한 문제…(자유아시아방송 14/09/05)

> 새로 지어진 번듯한 주택에 들어가 사는 주민들은 정전 때문에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개건)이전의 집들은 전기 사용과 함께 나무를 때는 (재래식)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전기로 밥을 하다가 도중에 정전이 되어도 바로 장작을 피워 밥을 계속 지을 수 있었다 … 새로 지은 집들에는 … 전기로 밥을 하다가 정전이 되면 아무런 대비책도 취할 수 없는 상황 … 이전의 낡은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2/020/15).

> 몇 년째 전기 구경도 못해서 불이 너무 안 오니까 이딴 거 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도배지랑 전기랑 갈면서 다 거둬버렸어요(탈북자 인터뷰, 박희진, 2020: 168).

김정은 정권하 지방도시 건설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선전한 것이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이었다. 북한 건축에서 '현대성'을 상징하는 인테리어 중 하나가 전열난방 또는 전열부엌의 설비인데, 전체 전기로 설비된 '현대적 살림집'은 불안정안 전기수급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재현된 도시'의 허상과 '도시의 실천' 사이의 괴리

본 연구는 북한 도시건설·개발의 모습을 주지하고, 이를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차용하여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 세 차원으로 도식화하여 북한 도시개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따라서 보면 '공간 재현'으로서 나타나는 북한 도시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구상·인지되는 모습, '재현 공간'으로서의 모습은 사회적 담론을 통해 묘사·상징화되는 도시 '이미지', 그리고 '공간적 실천'의 모습은 북한 도시주민들이 생활세계 차원에서 실제 경험하는 도시 생활로 도식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르페브르는 공간이라는 존재를 공간을 향유하는 사회 내 다양한 개별 주체

들, 특히 공간을 계획하는 자, 공간을 사용하는 자, 공간을 인식하는 자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단순한 장소, 지역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행위, 활동하며 관계하는 '사회적 생산물'이라 할 수 있다(르페브르, 2019: 71). 본 연구 역시 북한 도시를 고려할 때, 북한 도시공간이 통치자를 주체로 한 전략적 통치 공간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주체, 이를 향유하고 인지하는 주체, 그리고 공간을 실제 이용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분류, 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복합성, 다중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시의 계획, 건설, 인지, 참여하는 주체를 단순하게 구분 짓고 집단화하기 어렵지만, 북한 사회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면 크게 도시의 계획 및 건설에 관여하는 주체를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엘리트, 공간을 인식하며 향유하는 주체를 북한 도시 담론을 구성하는 담론의 생산자들, 그리고 사용, 실천하는 주체를 북한의 일반주민, 즉 '인민'으로 치환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주체를 고려하며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 차원에서 북한 도시건설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도식하 '인민'을 위한 발전된 문명생활의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사회주의문명' 본보기 도시로서 평양은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살림집의 건설 및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통해 '모든 인민'이 발전된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으로서 개발되었다. 도시공간은 김정은이 구축하는 새로운 '거리'들을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 빌딩을 구성하는 살림집들, 살림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변 생활 편의시설들로 배치되었다. 또한 화려하고 발전된 형태의 문화·체육시설들이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건설되며 '인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공간지형으로서 구획되었다. '인민'을 위한 도시건설의 모습은 삼지연과 같은 주요 지방도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치사상교양을 위한 상징적 건축물보다 살림집, 문화·체육시설의 건설이 더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평양 못지않은'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공간의 생산으로서 선전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하 정치엘리트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공간 속 '인민'의 실제 삶은 이들과 차이가 있었다.

북한 내부에서 살림집과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들은 모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그동안 지향해 온 '사회주의낙원'을 구현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선전되어 왔다. 평양뿐 아니라 삼지연과 같은 지방도시는 '평양 못지않은' 새롭게 발전되는 도시공간으로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공간 속 실제 삶을 영유하는 주민들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은 이들이 실제 이용을 원하지도, 쉽게 이용을 할 수도 없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으로서 상징화되는 '현대적' 살림집은 전기사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실생활 속 불안정한 전기공급으로 인해 생활 속 불편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명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문화·체육시설 역시 생계활동에 집중된 북한 일반주민들의 생활세계와는 분리된, 별개의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공간적 실천 차원에서 볼 때, 이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은 실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허구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인민'을 위해 계획하고 건축하였다는 새로운 도시공간은, 실제 '인민'의 삶 또는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엘리트들만의 분리된 제한 공간에 불과할 수 있다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종합하여 볼 때,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구축된 '사회주의문명'의 담론과 '도시건설' 사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으로 설명되었다.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 차원에서 볼 때, 도시건설 속 새롭게 구축된 공간들은 '인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공간들로 논의되었다. 김정은 정권 시대 건설된 북한의 '사회주의문명' 도시는 평등한 사회 속 '모든 인민'이 존중받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묘사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인민'을 위한 살림집과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사회주의문명'의 상징적 건축물로 건설되고 또 선전되었다. 그러나 현실세계 속 이 사회주의문명의 도시공간은 인민들의 삶 외부에 위치하였다. 오히려 인민을 건설된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부터 소외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치적 격차에 따라 인민 사이를 분할하고 파편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최근 북한은 산간도시의 본보기로서 삼지연 도시 개발의 완성을 선포하고, 검덕지구, 청진, 강계 등 지방도시의 계속적인 개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민'의 공간으로서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의 건설이,

계획과 이미지 구축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북한주민들이 공간을 경험하는 공간적 실천을 통한 '공간 검증'의 순간이 올 때, 징후적으로 보이는 구상된 공간과 실천된 공간의 괴리가 더욱 가시화되지 않을지 질문할 수 있다. 담론 속 도시의 모습이 실천적 행위 속에서 향후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3년 2월 8일 | 심사일: 2023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두환·최상희. 2020. "북한 김정은 시대 주요 건설사업의 현황과 특징." 『북한토지주택리뷰』 제4권 제2호, 24-39.

르페브르, 앙리 저. 양영란 역. 2019[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박성열·정원희·한지만. 2002. "북한의 상징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31-77.

박찬석. 2013. 『북한교육연구』. 한국학술정보.

박희진. 2020. "북한 국가건설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12권 1호, 151-184.

송원준. 2022. "심화분석-대북제재와 주민생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208-227.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양한순. 2007. "모범노동자가 된 부자들: 시장권력의 성장과 현대 중국사회모델의 변천." 『국제지역연구』 16권 3호, 125-167.

윤종석·박철현. 2014. "현대성과 모델의 지식정치: 중국 선양(瀋陽) 톄시구(鐵西區) 개조의 공간적 재현과 기억의 재구성." 『현대중국연구』 16권 1호, 315-370.

이종겸·정현주. 2022. "평양의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권 2호, 33-51.

임수진. 2019. "백두 구호를 통한 김정은정권의 정치사회화 전략 분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7집, 197-232.

전영선. 2022. 2장. "평양 재건과 아파트 정치."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59-85. 파주: 경진출판.

정은미. 2016. "제3부 제2장.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파주: 늘품플러스.

정일영. 2016. "북한에서 전시(展示)적 도시의 건설과 한계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 7-43.

_____. 2022. "1장. 김정은 시대의 도시, 평양을 읽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평양학연구센터 편. 『평양 오디세이』. 민속원.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2-02, 1-9.

현인애. 2018.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호와 현실." 『북한』 2월호, 53-59.

국내신문

데일리NK. 2013. "장사 바쁜데 물놀이장 의무방문지시에 불만."(12월 3일).

이설. 2022. "북한, 새해 첫 건설 성과는 '검덕지구'..."5000세대 건설 진척."" 『뉴스 1』(1월 1일).

북한문헌

공업출판사. 2017. "명제해설." 『조선건축 제1호』. 평양: 공업출판사.

김일성. 1982. "도시경영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1962년9월5일)." 『김일성저작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현환. 2016.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북한신문

『로동신문』. 1989. "공원과 유원지를 특색있게."(10월 18일). 4면.

_____. 1995. "혁명의 수도 평양의 면모를 일신시킨 위대한 업적."(3월 18일). 2면.

_____. 200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삼지연군의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10월 8일). 1면.

_____. 2013.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6월 5일).

_____. 20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11월 30일). 1면.

_____. 2013.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여.”(10월 20일). 2면.
_____. 2013.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한껏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10월 18일).
_____. 2013. “신년사.”(1월 1일). 1-2면.
_____. 2013. “우리의 사회주의문명국.”(1월 17일). 2면.
_____. 201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김정은동지께서는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5월 27일). 1~2면.
_____. 2014. “삼지연군이 훌륭히 꾸려진다.”(8월 8일). 1면.
_____. 2016.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본보기군으로 꾸릴 일념안고 삼지연군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8월 17일).
_____. 20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3월 16일).
_____. 2017. “자랑찬 행로우에 빛나는 눈부신 성과.”(4월 11일).
_____. 2017. “현대적인 살림집건설 적극 추진.”(10월 17일).
_____. 2018.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솟아난 려명거리.”(10월 5일).
_____. 2019. “건설의 대번영기에 펼쳐진 대동강반의 새로운 전변: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6월 26일). 3면.
_____. 2019.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4월 4일). 1면.
_____. 2019. “삼지연군건설 2단계공사 본격적으로 추진.”(3월 19일). 1면.
_____. 2019. “신년사.”(1월 1일). 1면.
_____. 2020. “사회주의산간도시의 본보기로 꾸려주시려.”(2월 27일). 2면.

Abstract

The Production of 'Socialist Civilized' Urban Space in the Kim Jong-un Era: Lefebvre's Space Production Theory

Suj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im Jong-un government proclaimed its vision for constructing "the society of Socialist Civilization" for its people (In-min). After proclaiming, the government started constructing "modern" and "scientific" buildings, streets, and public facilities not only in Pyongyang but also in several local cities. This study looks at these changes and analyzes how the discourses on constructing the society of Socialist Civilization and its urban development project have connected each other and the influence on the North Korean people (In-min). This study uses Henri Lefebvre's urban theory, especially his argument on three dimensions of space production: Representation of Space, Space of Representation, and Practice of Space.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urban spaces considering space arrangement and division by space designers (or political elites), images projected in social discoursed, and experiences of urban people in their real lives, following Lefebvre's argument on three dimensions of space produc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Kim Jong-un government has justified its construction of cities, arguing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quality of People's Socialist Civilized lives, and has refrained from emphasizing the leader's greatness as the previous governments. The government has advertised new houses and cultural and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which were organized for the peopl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se new "Socialist Civilized" spaces have not been

welcom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ir everyday lives.

Keywords | Henri Lefebvre, space production, North Korean cities, the Kim Jong-un government, Pyongyang, Samjiyeon